

# 아이돌보미의 안전행동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안전지식, 안전인식, 안전효능감을 중심으로

문하람<sup>1</sup>, 어용숙<sup>2\*</sup>

<sup>1</sup>동국대학교 간호학과 대학원, <sup>2</sup>동국대학교 간호학과

## Influencing Factors to the Safety Practices of in-home Child-care Providers: Focusing on Safety Knowledge, Safety Awareness, and Safety efficacy

Ha-Ram Moon<sup>1</sup>, Yong-Sook Eo<sup>2\*</sup>

<sup>1</sup>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Nursing, Dongguk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Nursing, Donggu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아이돌보미의 안전지식, 안전인식, 안전효능감과 안전행동실천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상북도 소재 2개 시에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하여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아이돌보미 199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실시하고,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아이돌보미의 안전지식은  $0.64(\pm 0.09)$ 점이었으며, 안전인식은  $1.92(\pm 0.37)$ 점, 안전효능감은  $4.18(\pm 0.51)$ 점, 안전행동실천은  $2.55(\pm 0.36)$ 점이었다. 안전행동 실천은 안전지식( $r=.14, p=.042$ ), 안전효능감( $r=.43, p<.001$ )과 안전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 $r=.32, p<.001$ ), 주위사람 도움( $r=.40, p<.001$ ), 주위환경 조절( $r=.39, p<.0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아이돌보미의 안전행동실천 영향요인으로 안전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주위사람 도움( $\beta=.24, p=.009$ )과 주위환경 조절( $\beta=.19, p=.039$ )이었으며, 이들 요인들의 안전행동 실천 설명력은 20.0%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아이돌보미의 안전행동 실천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orrelation between safety practices and safety knowledge, safety awareness and safety efficacy, a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afety practices of in-home child-care providers. The participants were 199 in-home child-care providers who worked at two cities in G province. Using a structured-questionnair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December 2019 to January 2020.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IMB/SPSS 25.0 program.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percent, mean, and SD), a t-test, ANOVA, Scheff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The mean score for safety knowledge, safety awareness, safety efficacy, and safety practices were 0.64 (SD, 0.09), 1.92 (SD, 0.37), 4.18 (SD, 0.51), and 2.55 (SD, 0.36), respectively. Safety practice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safety knowledge ( $r=.14, p=.042$ ), safety efficacy ( $r=.43, p<.001$ ), and sub-factors of safety efficacy, self-regulation ( $r=.32, p<.001$ ), enlisting social support ( $r=.40, p<.001$ ), and controlling the environment ( $r=.39, p<.001$ ). Enlisting social support and controlling the environment, sub-factors of safety efficacy were influenced safety practices significantly and explained 20.0% of the variance. Based on these findings, it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a program that can enhance their safety efficacy for safety practices of in-home child-care providers.

**Keywords** : Child-care Provider, Safety Knowledge, Safety Awareness, Safety Efficacy, Safety Practices

본 논문은 제1저자 문하람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Yong-Sook Eo(Dongguk Univ.)

email: nursingeo@dongguk.ac.kr

Received July 21, 2020

Revised August 3, 2020

Accepted December 4, 2020

Published December 31, 2020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증가로 인한 맞벌이 가정 증가와 더불어 이들의 양육지원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국가 주도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3개월 이상에서 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이다[1].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크게 증가하는 추세인데, 2014년 54,362가구에서 2018년 64,591가구로 4년간 18.8% 증가하였으며, 이들 가구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도 같은 기간인 2014년 17,280명에서 2018년 23,675명으로 4년간 37.0% 증가하여[2],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돌보는 아동의 수도 크게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아동안전사고 사망자수는 2013년부터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까지 아동 사망 원인 중에 안전사고가 1위로 매년 평균 200명이 넘는 아동이 안전사고로 희생되고 있다[3]. 특히, 아이돌보미의 주요 돌봄 대상이 되고 있는 1~6세 아동의 안전사고 건수가 79.9%로 과반 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며, 안전사고의 장소도 가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3]. 가정 내 아동 안전사고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심각한 수준이어서 2000~2005년 사이에 0~19세 아동 중 73,000명이 사망하였다[4]. 아동은 스스로 문제를 확인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많이 노출된다[5]. 따라서 아동의 안전사고는 부모나 주된 양육자에게 의존적이고, 그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6]. 그러므로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행동을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안전행동 실천은 아동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위험한 상황에 대하여 지각하여 안전한 환경을 구성하고 유지하며, 아동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이다[7]. 안전행동 실천은 사고의 가능성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의 정도를 줄일 수 있다[8]. 안전행동 실천의 생활화는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여 사고가 나더라도 크게 발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성인과 달리 아동에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경미할지라도 사고의 후유증이 심각하고 치명적일 수 있다. 또한 사고 아동에 대한 간호로 인하여 성인의 근로손실, 아동의 장애발생 시 발생하는 비용 등과 같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

하는 것을 감안하면[9], 안전행동 실천은 무엇보다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영유아를 돌보는 사람의 안전행동 실천은 돌보는 대상에 따라 연구결과가 차이가 있었는데,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낮았으며[7], 보육교사[8]와 아이돌보미[10]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아동의 안전사고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93.8%가 가정내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11]를 보더라도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사람의 안전행동 실천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아동을 돌보는 사람의 안전행동 실천과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보면 안전지식[7,12], 안전인식[7,9,10] 등이 보고되고 있다. 안전지식은 안전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9],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다[13].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안전지식이 높을수록 안전행동 실천이 높았으며[10],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아교사가 안전지식이 풍부하고 정확할수록 아동을 위한 안전교육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안전지식이 안전행동 실천의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10].

안전인식은 위험한 상황에 대한 지각으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의미한다[14]. 어머니[9]와 유아교사[15]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안전인식이 높을수록 안전행동 실천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안전인식이 안전행동 실천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10].

한편, 안전효능감이 안전행동 실천의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16-17]. 안전효능감은 안전과 관련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17], 안전에 대한 자기조절 측면뿐 아니라 환경에 대한 통제와 조절, 사회와 주변 사람의 도움을 유도하는 효능감을 포함하고 있다[16]. 안전효능감은 주로 청소년과 작업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16-18], 안전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안전행동 실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도 안전효능감은 아동의 안전에 대한 자기조절과 그들이 관리하는 가정이나 교실환경에 대한 통제와 조절,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효능감 등이 안전행동 실천에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되나 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아이돌보미의 안전행동 실천과 관련하여 안전지식, 안전인식, 안전효능감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아이돌보미의 안전행동 실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을 개발하여 아동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아이돌보미의 안전지식, 안전인식, 안전효능감 및 안전행동 실천 정도를 확인한다.
- 2) 아이돌보미의 일반적 특성과 직업관련 특성에 따른 안전행동 실천의 차이를 확인한다.
- 3) 아이돌보미의 안전지식, 안전인식, 안전효능감 및 안전행동 실천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4) 안전지식, 안전인식, 안전효능감이 아이돌보미의 안전행동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아이돌보미의 안전지식, 안전인식, 안전효능감, 안전행동 실천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은 1개 도의 2개 도시에서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자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은 6세 이하 아동을 최소 3개월 이상 돌본 경험이 있으며,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서면 동의를 한 자이다. 6세 이하 아동은 아동의 안전특성이 발달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며, 측정도구를 6세 이하에 맞추었기 때문이다. 표본의 산정은 G\*Power 3.1.9.4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alpha$ ) .05, 검정력 (1- $\beta$ ) 95%, 중간효과 크기( $f^2$ ) 0.15, 독립변수 13개(일반적 및 직무특성 8개, 안전지식, 안전인식, 안전효능감(3개 하부요인))를 투입했을 때 최소한의 표본 수는 189명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 199명은 이를 충족하였다.

자료수집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자료수집은 아이돌보미 양성기관을 방문하여 협조를 구하고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또는 집담회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기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목적, 자료수집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자료조사에 대한 동의를 얻어 진행하였다. 설문작성에는 1인당 약 15~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는 연구원이 직접 설문지를 읽고 이해시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3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 직업관련 특성과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안전지식, 안전인식, 안전효능감, 안전행동 실천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도구는 원저자에게 도구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였다. 수정·보완한 도구는 아동간호학 전공교수 4인과 아이돌보미 교육 경험이 있는 전문가 6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내용타당도는 개별문항의 내용타당도 (Item-level Content Validity Index, I-CVI)와 전체 문항의 내용타당도(Scale-level Content Validity Index, S-CVI)를 산출하였다.

#### 2.3.1 안전지식

안전지식은 Fickling[19]이 개발한 미취학 아동의 아동가정에서의 위험인식(Awareness of Risks in the Child's Home, ARCH) 도구를 바탕으로 Kang[20]이 부모를 대상으로 수정·변안한 것을 본 연구대상자에게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Kang[20]의 도구는 기존에 총 43문항이었으나, 현재 우리나라 가정내 상황과 맞지 않는 9문항을 삭제 하였다. 안전지식 도구는 기침·협착 2문항, 추락 5문항, 영유아 발달과 안전 3문항, 화재·화상 7문항, 화장실·욕실안전 2문항, 질식 3문항, 중독 7문항, 전기안전 3문항, 놀이감 안전·시설 안전 2문항으로 총 34문항의 사지선다형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서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으로 채점하여 총 점수를 구하였고, 다시 총 점수를 전체문항수인 34로 나누어 '0'점에서 '1'점의 범위가 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타당도인 I-CVI는 최소 .90, 최대 1.00의 범위를 가지며, S-CVI는 .93 이었다. 본 연구에서 이분문항의 신뢰도인 Kuder-Richardson 20은 .50으로 나타났다.

#### 2.3.2 안전인식

안전인식은 Framingham의 아동안전 조사도구[21]를 바탕으로 Shin 등[22]이 변안한 도구를 본 연구대상

자에게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Shin 등[22]의 도구는 총 7문항 이었으나, 본 연구의 대상자인 아이돌보미가 돌보는 아동의 인지적 특성과 맞지 않는 1문항(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은 사고예방에 대해 알고 있다)을 삭제하여 안전인식은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그렇지 않다' 1점, '그저 그렇다' 2점, '매우 그렇다' 3점으로 배점하여 점수가 낮을수록 아이돌보미의 안전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타당도인 I-CVI는 최소 .90, 최대 1.00으로 나타났으며, S-CVI는 .93 이었다. 도구의 신뢰도는 Shin 등[2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7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70으로 나타났다.

### 2.3.3 안전효능감

안전효능감은 Park 등[18]이 개발한 안전효능감 측정 도구를 본 연구에게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Park 등[18]은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효능감 도구를 개발하였는데, 이를 아동을 돌보는 아이돌보미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였다. 이 도구는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 자신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자기조절 5문항, 자신의 안전을 위해 주위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위사람 도움 5문항, 안전할 수 있도록 주위환경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주위환경 조절 5문항으로 3개의 영역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못한다' 1점, '약간 못한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잘한다' 4점, '매우 잘한다' 5점으로 부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타당도인 I-CVI 모두 1.00으로 나타났으며, S-CVI는 1.00 이었다. 도구의 신뢰도는 Park 등[18]의 연구에서 3개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 주위사람 도움, 주위환경 조절 각각의 Cronbach's  $\alpha$ 가 .79, .83, .8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하위요인의 Cronbach's  $\alpha$ 는 .78, .81, .89로 나타났으며 전체 도구의 Cronbach's  $\alpha$ 는 .91이었다.

### 2.3.4 안전행동 실천

안전행동 실천은 Framingham의 아동안전 조사도구 [21]를 바탕으로 Shin 등[22]이 학령기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하였다. Shin 등[22]의 도구는 총 33문항 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인 아이돌보미가 아동의 가정에서 하는 업무상황과 맞지 않거나, 우리나라 가정내 상황과 맞지 않는 4

문항을 삭제하였다. 안전행동 실천 도구는 안전에 대한 대처 및 행동 5문항, 약물관리 4문항, 전기기구관리 4문항, 화재예방 4문항, 화상예방 2문항, 아동 감독 2문항, 차량안전 4문항, 집안환경 점검 4문항으로 8개 하위요인의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그렇지 않다' 1점, '그저 그렇다' 2점, '매우 그렇다' 3점을 부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행동 실천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도구의 타당도 I-CVI는 최소 .90에서 최대 1.00까지로 나타났으며, S-CVI는 .98이었다. 도구의 신뢰도는 Shin 등[2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7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는 .86으로 나타났다.

##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요 변수들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직업관련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차이는 t-test와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변수간의 관계는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아이돌보미의 안전행동 실천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계수를 확인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도는 전문가 10인에게 4점 Likert 척도로 도구의 개별문항 내용타당도(Item-level Content Validity Index, I-CVI)와 전체문항의 내용타당도(Scale-level Content Validity Index, S-CVI)를 분석하였고, 신뢰도는 이분문항인 경우 Kuder-Richardson 20, 그 이외의 문항은 Cronbach's  $\alpha$ 로 산출하였다.

## 2.5 윤리적 고려

대상자의 연구참여에 따른 권리와 개인정보에 대한 윤리적 보호를 위해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20190030)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에 연구를 시작하기 전 모든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과 익명성이 보장되며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 대상자의 자율의사에 따라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자료수집과 관련하여 이와 관련된 설명을 구두로

하였고, 자발적인 동의서를 받은 후에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작성에는 1인당 약 15~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는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의 내용을 설명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지를 포함한 연구과제 관련 서류 모두는 생명윤리법에 의거하여 안전하게 보관할 것이며, 보관기간이 지난 자료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영구 삭제 및 파쇄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자료수집이 끝난 후에는 설문지 응답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5,000원 상당의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업관련 특성 및 이에 따른 안전행동 실천 차이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55.24세로 50세 이상~60세 미만이 61.3%로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이 20.1%, 50세 미만이 18.6%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고졸

54.8%, 전문대졸 25.1%, 대졸이상 20.1% 순이었다. 월 수입은 100만원 이상 39.7%, 50만 이상~100만원 미만 36.7%, 50만원 미만 23.6%이었다. 대상자의 직업관련 특성 중 아이돌보미 경력은 5년 이상 29.6%, 1년 이상~3년 미만 27.1%, 3개월 이상~1년 미만 24.6%, 3년 이상~5년 미만 18.6% 순이었다. 주 평균 활동일은 5일이 54.8%로 가장 많았고 4일 이하 30.2%, 6일 15.1%이었다. 근무유형은 시간제가 85.4%, 종일제가 14.6%이었다. 돌보는 아이 수는 1명 43.7%, 2명 37.2%이었고 3명 11.1%, 4명 이상 8.0%이었다. 돌보는 아동의 연령은 3세 이상~6세 미만이 50.8%로 가장 많았고, 1세 이상~3세 미만 39.2%, 1세 미만 10.1%이었다(Table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업관련 특성에 따른 안전행동 실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는 특성이 없었다(Table 1).

#### 3.2 안전지식, 안전인식, 안전효능감과 안전행동 실천의 정도

대상자의 안전지식은 1점 만점에 평균 0.64(±0.09)

Table 1. Difference in Safety Practices to General and Job-related Characteristics (N=19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Safety practices	
			M±SD	t or F(p)
Age (year)	<50	37(18.6)	2.56±0.33	1.43(.243)
	50~<60	122(61.3)	2.58±0.36	
	≥60	40(20.1)	2.47±0.35	
Education	High school	109(54.8)	2.60±0.32	2.14(.120)
	Associate degree	50(25.1)	2.47±0.41	
	≥Bachelor's degree	40(20.1)	2.55±0.36	
Monthly income(KRW/manwon)	<50	47(23.6)	2.52±0.37	0.50(.605)
	50~<100	73(36.7)	2.58±0.32	
	≥100	79(39.7)	2.55±0.37	
Length of employment(year)	3m~<1	49(24.6)	2.57±0.34	0.67(.572)
	1~<3	54(27.1)	2.55±0.36	
	3~<5	37(18.6)	2.61±0.28	
	≥5	59(29.6)	2.51±0.40	
Work days per week	≤4	60(30.2)	2.50±0.39	1.32(.268)
	5	109(54.8)	2.59±0.31	
	6	30(15.1)	2.53±0.41	
Type of employment	Part time	170(85.4)	2.56±0.35	0.18(.854)
	Full time	29(14.6)	2.54±0.38	
Number of children reared	1	87(43.7)	2.52±0.35	2.34(.074)
	2	74(37.2)	2.55±0.38	
	3	22(11.1)	2.74±0.19	
	≥4	16( 8.0)	2.52±0.38	
Age of caring child	<1	20(10.1)	2.54±0.31	0.72(.490)
	1~<3	78(39.2)	2.59±0.34	
	3~<6	101(50.8)	2.53±0.38	

점이었다. 안전지식 내용별로는 화장실·욕실안전 이 0.85(±0.24)점으로 가장 높았고, 끼임·협착 0.76(±0.30) 점, 영유아 발달과 안전 0.75(±0.23)점, 중독 0.73(±0.15) 점, 화재·화상 0.68(±0.13)점, 추락 0.59(±0.20)점으로 1점 만점의 중간점수인 0.5점 보다 높았다. 반면, 질식 0.47(±0.27)점, 전기안전 0.46(±0.25)점, 놀이감 안전·시설 안전 0.21(±0.26)점으로 0.5점보다 낮았다(Table 2).

Table 2. Levels of Safety Knowledge (N=199)

Variables	Mean±SD	Potential range	Actual range
Safety knowledge	0.64±0.09	0-1	0.38-0.88
Being stuck · narrowing	0.76±0.30	0-1	0.00-1.00
Fall	0.59±0.20	0-1	0.00-1.00
Development and safety of infant-preschooler	0.75±0.23	0-1	0.00-1.00
Fire · Burn	0.68±0.13	0-1	0.29-1.00
Toilet and bathroom safety	0.85±0.24	0-1	0.00-1.00
Choke	0.47±0.27	0-1	0.00-1.00
Addiction	0.73±0.15	0-1	0.29-1.00
Electric safety	0.46±0.25	0-1	0.00-1.00
Play toys · facility safety	0.21±0.26	0-1	0.00-1.00

안전인식은 3점 만점에 평균 1.92(±0.37)점으로 나타났다. 안전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4.18(±0.51)점으로 나타났다. 안전효능감의 하위요인으로는 주위환경 조절이 4.32(±0.58)점으로 가장 높았고, 주위사람 도움 4.16(±0.59)점, 자기조절 4.04(±0.61)점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행동 실천은 3점 만점에 평균 2.55(±0.36)점으로 나타났다. 안전행동 실천의 하위요인으로는 아동감독이 2.83(±0.54)점으로 가장 높았고, 차량안전 2.75(±0.47) 점, 화상예방 2.75(±0.53)점 순으로 높았다. 낮은 순위로는 안전에 대한 대처 및 행동이 2.34(±0.50)점으로 가장 낮았고, 화재예방 2.47(±0.63)점, 약물관리 2.47(±0.59)점의 순으로 낮았다(Table 3).

### 3.3 안전지식, 안전인식, 안전효능감 및 안전행동 실천과의 관계

안전행동 실천은 안전지식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r=.14, p=.042$ ), 안전효능감( $r=.43, p<.001$ )과 안전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 $r=.32, p<.001$ ), 주위사람 도움( $r=.40, p<.001$ ), 주위환경 조절( $r=.39, p<.0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안전인식( $r=-.03, p=.682$ )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안전행동 실천에 안전지식, 안전인식, 안전효능감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회귀분석을 실행하기 전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독립성, 정규성, 등분산의 조건을 검정하였다.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는 0.49~0.95로 0.1이상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요인(VIF)도 최대 2.04로 10을 넘지 않았다. 또한 오차의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1.83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잔차분석 결과 표준화된 잔차의 범위가 1.26~0.64로 등분산을 만족하였고, 잔차도표(plot)를 살펴본 결과 정규성이 확인되었다.

안전지식, 안전인식, 안전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기조

Table 3. Levels of Safety Awareness, Safety Efficacy and Safety Practices (N=199)

Variables	Mean±SD	Potential range	Actual range
Safety awareness	1.92±0.37	0-3	1.00-3.00
Safety efficacy	4.18±0.51	1-5	2.87-5.00
Self-regulation	4.04±0.61	1-5	2.60-5.00
Enlisting social support	4.16±0.59	1-5	2.60-5.00
Controlling the environment	4.32±0.58	1-5	2.60-5.00
Safety practices	2.55±0.36	0-3	1.17-3.00
Coping and behavior on safety	2.34±0.50	0-3	1.00-3.00
Managing drugs	2.47±0.59	0-3	0.00-3.00
Managing electric devices	2.48±0.55	0-3	0.50-3.00
Preventing fire	2.47±0.63	0-3	0.00-3.00
Preventing burns	2.75±0.53	0-3	0.00-3.00
Supervision of children	2.83±0.54	0-3	0.00-3.00
Vehicle safety	2.75±0.47	0-3	0.75-3.00
Inspecting home environment	2.64±0.48	0-3	0.75-3.00

Table 4. Relationship among Safety Knowledge, Safety Awareness, Safety Efficacy and Safety Practices

(N=199)

Variables	Safety knowledge r(p)	Safety awareness r(p)	Safety efficacy			
			Total r(p)	Self-regulation r(p)	Enlisting social support r(p)	Controlling the environment r(p)
Safety awareness	.18 (.009)					
Safety efficacy	.16 (.027)	.03 (.669)				
Self-regulation	.15 (.033)	.09 (.233)	.86 ( <i>&lt;.001</i> )			
Enlisting social support	.12 (.100)	.01 (.966)	.87 ( <i>&lt;.001</i> )	.62 ( <i>&lt;.001</i> )		
Controlling the environment	.14 (.050)	-.01 (.880)	.87 ( <i>&lt;.001</i> )	.62 ( <i>&lt;.001</i> )	.66 ( <i>&lt;.001</i> )	
Safety practices	.14 (.042)	-.03 (.682)	.43 ( <i>&lt;.001</i> )	.32 ( <i>&lt;.001</i> )	.40 ( <i>&lt;.001</i> )	.39 ( <i>&lt;.001</i> )

절, 주위사람 도움, 주위환경 조절을 회귀분석에 투입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9.59,  $p<.001$ ), 이들 요인이 안전행동 실천을 20.0% 설명하였다. 안전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주위사람 도움( $\beta=.24$ ,  $p=.009$ )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주위환경 조절( $\beta=.19$ ,  $p=.039$ )이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지식과 안전인식은 유의하지 않았다(Table 5).

Table 5. Factors Influencing Safety Practices (N=199)

Variables	B	S.E	$\beta$	t(p)
(Constant)	1.20	0.25		4.73( <i>&lt;.001</i> )
Safety knowledge	0.38	0.27	.09	1.39(.167)
Safety awareness	-0.05	0.06	-.05	-0.73(.465)
Self-regulation	0.02	0.05	.04	0.47(.639)
Enlisting social support	0.15	0.06	.24	2.62(.009)
Controlling the environment	0.14	0.06	.19	2.08(.039)

$R^2=.20$ , Adjusted  $R^2=.18$ , F=9.59,  $p<.001$

#### 4. 논의

본 연구는 아이돌보미의 안전행동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안전지식, 안전인식, 안전효능감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아이돌보미의 안전행동 실천을 향상시키는 중재방안을 개발하는데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안전지식은 0.64점으로, 본 연구와 같은 대상인 Kim 등[10]의 0.59점보다는 높았으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Park 등[23]의 0.61점과는 유사하였다. Kang[20]의 영유아 부모 대상의 연구에서 안전교육 전 안전지식은 0.52점에서 교육 후 0.73점으로 높아져, 안전교육이 안전지식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신규자는 이론관련 교육 80시간,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하여야 하고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30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다 [1]. 이중 안전관리는 전체 80시간 중 안전관리와 응급처치 내용으로 5시간을 이수하게 되어 있다. 아이돌보미가 돌보는 아동의 연령대는 6세 미만으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일 뿐 아니라 인지적으로 안전사고에 스스로 대처하지 못해 돌보는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따라서 아이돌보미의 안전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안전교육시간을 정규 교육과정에서 늘릴 필요가 있으며, 보수교육을 통하여 안전지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안전지식의 하위 요인 중 낮은 점수를 보인 놀이감 안전·시설안전, 전기안전, 질식은 아동에게 치명적인 건강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안전인식은 1.9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 등[9]의 12세 이하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60점보다 높았으며, 본 연구와 대상자가 같은 Kim 등[10]의 연구에서 1.41점보다 낮았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해 주고,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사업[1]으로 아동의 안전과 양육이 중점이 된다[24]. 그러나 아이돌봄 교육과정의 많은 내용들이 아동의 양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추후 이들의 안전인식을 높일 수 있

도록 정규과정 뿐 아니라 보수교육을 통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안전효능감은 4.1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 등[16]의 청소년 대상의 연구에서 3.05점 보다 높았다. 안전효능감 개념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안전에 대한 자신감을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Oh 등[25]의 연구에서의 3.85점(4점 척도를 5점 척도로 환산)보다 높았다. 안전효능감은 안전과 관련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17],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학습방법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아이돌보미 양성사업에서는 기본교육과정에서 연령별 안전사고, 가정에서의 안전사고 현황과 점검사항, 활용자원 등을 배우고, 보수교육을 통해 실제 안전사고와 관련된 사례를 들어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 아이돌보미의 직업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이 아이돌보미의 안전효능감을 높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안전효능감의 하위요인에서 주위환경 조절과 주위사람 도움, 자기조절 등의 순으로 높았던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안전행동 실천은 2.5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 등[10]의 아이돌보미 대상 연구 2.42점, Oh 등[25]의 보육교사 대상 연구 2.51점과 유사하였지만 Kim 등[26]의 부모대상 연구 2.99점 보다는 낮았다. 이는 아이돌보미와 보육교사의 주 업무가 아동의 양육과 안전이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아동의 발달적인 측면인 양육에 좀 더 초점이 맞추어져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6세 미만 아동은 자신 스스로 안전에 대해 대처할 수 없는 발달단계이므로 좀 더 안전에 초점을 둔 돌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적 특성과 직업관련 특성에 따른 안전행동 실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이돌보미 경력, 월 평균 활동 시간 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Kim 등[10]의 연구와 다른 결과였다. 본 연구에서 아이돌보미의 안전행동 실천에 차이가 없었던 직업관련 특성들은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아이돌보미의 안전행동 실천과 관련된 선행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안전지식, 안전인식, 안전효능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살펴본 결과 안전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주위사람 도움과 주위환경 조절이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인은 안전행동 실천을 20.0% 설명하였다.

안전효능감은 안전행동 실천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를 보였고, 하위요인인 주위사람 도움, 주위환경 조절이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7]에서 안전효능감이 높을수록 안전행동 실천이 높았으며, 청소년의 안전효능감은 높은 집단에서 낮은 사람에 비해 안전사고 예방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Park & Kim[27]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안전효능감과 아동을 돌보는 사람의 안전행동 실천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없지만,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영유아의 안전을 포함한 건강증진행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8]. 또한 보육교사의 감염예방 실천에서 감염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29] 구체적 상황에 대한 효능감이 행동실천과 관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안전행동 실천의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안전효능감의 하위요인은 주위사람 도움과 주위환경 조절이었는데, 아이돌보미의 직업관련 특성상 주위 동료, 아동의 부모, 아이돌보미 협회 등과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이에 대한 능력감이 안전행동 실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정에서의 안전한 환경을 조절하기 위한 교육 등이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의 신규, 보수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한 습득이 자신의 환경조절과 관련된 능력감으로 이어져 안전행동 실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안전지식은 안전행동 실천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영향요인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안전지식이 안전행동 실천의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선행연구[5,10]와 일치하지 않았다. 안전지식과 안전행동 실천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없는 연구 등[26]도 있어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관관계는 있지만 영향요인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안전지식 도구는 내용타당도는 높았으나 신뢰도가 .50으로 낮았다. 따라서 추후 6세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아이돌보미의 안전지식 도구의 신뢰도를 높여 안전지식과 안전행동 실천과의 관계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전인식은 안전행동 실천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Yoon & Jung[12]과 Kim 등[10]의 연구와 일치하였고, Kim 등[9]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안전인식은 안전에 대한 개인의 태도나 신념을 의미하는 것으로[12],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책 마련과 관련된다. 이는 아동에게 발생하는 사고가 성인과 달리 경미하더라도 사고의 후유증이 심각하고 치명적인 특성[9]



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아동을 돌보는 맥락에서 안전인식과 관련된 구성개념을 탐색적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안전인식과 안전행동 실천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아동을 돌보는 사람의 안전행동 실천의 영향요인으로 안전효능감을 확인한 것이라 생각한다. 안전효능감은 Bandura[30]의 자기효능감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건강증진행위 실천의 중요한 요소로 밝혀져 왔는데, 아이돌보미의 안전행동 실천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영향요인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본 연구와 대상자가 같은 선행연구[10]에서 안전지식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추후 안전지식, 안전인식, 안전효능감과 안전행동 실천간의 상호관계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현재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과정에서는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시간이 적고 교육방법도 이론 강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아이돌보미의 안전행동 실천을 높이기 위한 중재로 모델링, 대리경험, 안전교육실습 등의 교육방법을 강화하여 안전효능감을 향상시키며, 안전교육시간도 현행보다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2개 지역의 6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대상자를 임의로 표집하였고, 안전지식 도구의 신뢰도가 낮았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 권역별로 아이돌보미 사업단을 대상으로 대표성 있게 표본을 추출하고, 안전지식 도구의 신뢰도를 높여 후속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 5. 결론

본 연구는 아이돌보미의 안전행동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안전지식, 안전인식, 안전효능감을 확인하여 추후 아이돌보미의 안전행동 실천을 높여 아동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아이돌보미의 안전지식은 0.64(±0.09)점이었으며, 안전인식은 1.92(±0.37)점, 안전효능감은 4.18(±0.51), 안전행동 실천은 2.55(±0.36)점이었다. 아이돌보미의 안전행동 실천 영향요인으로 안전효능감의 하부요인인 주위사람 도움과 주위환경 조절이었으며, 이들 요인들의 안전행동 실천 설명력은 20.0%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아이돌보미의 안전행동 실천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지식과 안전인식은 안전행동 실천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들 요인들은 여러 연구에서 일치되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나므로 추후 이들 요인들의 상호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안전효능감을 높이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이돌보미의 안전행동 실천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 References

- [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Guideline of in-home child-care provider support program",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pp.1-242, 2020.
- [2] Korean In-home Child-care Providers' Service, 2020[Internet], <http://care.idolbom.go.kr> , 2020.
- [3] Korean Consumer Agency. "Analysis of children's safety accidents", *Korean Consumer Agency*, 2018.
- [4] M. M. A. Corbett, "An evidence based overview of parental supervision and childhood injury risk" *ICPHO annual meeting*. 2010.
- [5] S. J. Um, "Relationship among the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of safety of child care teachers",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No.81, pp.111-128, 2013.
- [6] H. N. Yoo, "Factors affecting job satisfaction of in-home child care helpers: focusing on child-care efficacy, job efficacy, and health promoting lifestyle",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22, No.2, pp.71-78, 2016.  
DOI: <https://dx.doi.org/10.4094/chnr.2016.22.2.71>
- [7] J. K. Jeong, S. Y. Sung, "The recognition, practices, and knowledge of child care teachers for infant safety",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18, No.2, pp.125-149, 2011.
- [8] E. K. Lee, H. J. Ahn, "Relationships between early childhood teacher's knowledge and practice about safet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44, No.6, pp.15-22, 2006.
- [9] S. J. Kim, J. M. Lee, J. Y. Min, "Parents' perception and behaviors regarding child safety accident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23, No.1, pp.91-100, 2017  
DOI: <https://dx.doi.org.kproxy.dongguk.edu/10.4094/chnr.2017.23.1.91>
- [10] H. S. Kim, I. H. Kim, W. O. Oh, "Factors related to the safety practices of in-home child-care providers for the safety of young children",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No.101, pp.141-162, 2016.

- [11] J. Y. Kim, N. R. Kim, "The actual type of domestic safety accident of children and the safety knowledge according to variables of par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10, pp.454-461,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10.454>
- [12] S. W. Yoon, Y. K. Jung,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awareness and practice on safety of mothers with infant and young childre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Vol.7, No.1, pp.115-134, 2012.  
DOI: <https://doi.org/10.16978/ECEC.2012.7.1.006>
- [13] B. Spodek, O. N. Saracho, "*Right from the start: teaching children ages three to eight*", Boston, MA: Allyn and Bacon, 1993.
- [14] K. S. Lee, Y. H. Jang, M. R. Jung, S. Y. Bae, H. S. Park, "*Safety education and first aid for infants and toddlers*", Seoul: Yangseowon, 1997.
- [15] Y. R. Chae, S. K. Shin, "Relationship between early childhood teachers' safety recognition and class environment condition of safety",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13, No.3, pp.397-412, 2009.
- [16] U. C. Kim, Y. S. Park, D. H. Park, "Adolescents' causal attribution of accidents and their cognitive representation safety and safety efficacy",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Vol.7, No.2, pp.39-63, 2001.
- [17] G. H. Lee, D. H. Park,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beliefs and industrial accid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ol.14, No.2, pp.127-139, 1999.
- [18] Y. S. Park, D. H. Park, U. C. Kim, "Effective educational program to reduce industrial accidents: empirical analysis of private sector employees, safety managers, and government officials",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Vol.4, No.1, pp.277-307, 1998.
- [19] J. A. W. Fickling, "*The construction and testing of a measure of parental knowledge of home-based injury risks to preschool children*", Doctoral's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Baltimore, USA, p.19, 1993.
- [20] S. H. Kang, "*A study of developing safety education program for parents based on the analysis of childhood household injuries*", Doctoral's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pp.85-86, 2003.
- [21] K. Hansen, D. Wong, P. C. Young, "Do the Framingham safety surveys improve injury prevention counseling during pediatric health supervision visits?", *The Journal of pediatrics*, Vol.129, No.4, pp.494-498, 1996.  
DOI: [https://doi.org/10.1016/s0022-3476\(96\)70112-9](https://doi.org/10.1016/s0022-3476(96)70112-9)
- [22] H. S. Shin, I. Y. Yoo, H. Y. Park. "Safety perception and behaviors of mothers with school age children",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13, No.2, pp.130-137, 2007.
- [23] Y. R. Park, K. H. Kim, M. H. Choi, "A study on safety knowledge, health beliefs and self-efficacy of child care teacher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12, No.4, pp.478-485, 2006.
- [24] Y. K. Kim, J. Y. Park, H. R. Song,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a childcare service program for the dual-income family: a focus on the service of nongovernmental institution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48, No.5, pp.145-155, 2010.  
DOI: <https://doi.org/10.6115/khea.2010.48.5.145>
- [25] K. S. Oh, M. K. Sim, E. K. Choi, "Knowledge, self-confidence and practice of teachers concerning health and safety of children in child-daycare cent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Vol.14, No.2, pp.155-162, 2008.
- [26] J. Y. Kim, J. J. Youn, Y. L.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safety knowledge and home safety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4, No.9, pp.4240-4247, 2013.  
DOI: <https://doi.org/10.5762/KAIS.2013.14.9.4240>
- [27] Y. S. Park, U. C. Kim, "The influence of parent-child relationship on achievement motiv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among Korean adolescents: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0, No.1, pp.139-165, 2003.
- [28] N. O. Jeong, "Influence of parents' parenting efficacy on health promotion behavior in early childhood",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15, No.2, pp.236-244, 2009.  
DOI: <https://doi.org/10.4094/jkachn.2009.15.2.236>
- [29] Y. J. Yang, I. S. Kwon, "The effects of childcare teachers' infection prevention knowledge, self-efficacy, and emotional labor on their infection prevention practic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Vol.16, No.1, pp.79-97, 2016.
- [30] Bandura, A.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NY: Worth Publishers, 1997.  
DOI: <https://doi.org/10.5860/choice.35-1826>

문 하 램(Ha-Ram Moon)

[정회원]



- 2007년 2월 : 한서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학사)
- 2020년 8월 : 동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7년 9월 ~ 2014년 12월 :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간호사
- 2015년 3월 ~ 2017년 8월 : 포항세명 기독교병원 간호사

<관심분야>

간호학

---

어 용 숙(Yong-Sook Eo)

[정회원]



- 1998년 2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4년 8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5년 3월 ~ 2012년 8월 : 춘해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17년 9월 ~ 현재 : 동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성장발달, 건강취약계층